



5·18묘지 찾은 참배객들 6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들이 묘비 주변을 걷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세월호 참사에 올 5·18 행사 대폭 줄인다

34주년 기념행사 최종안 오늘 확정

시·도민 애도 분위기 감안 상당수 행사 취소될 듯

‘임 행진곡’ 기념곡 미지정엔 국비 1억여원 반납 검토

5·18 민주항쟁 제34주년 기념행사가 대폭 축소된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애도 분위기를 고려한 조치로, 국가보훈처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34주년 공식 기념식 행사 파행도 불가피해지고 있다. 6일 5·18 민주항쟁 제34주년 기념행사위원회(이하 행사위)에 따르면 행사위 공동대표 단과 집행위원단은 7일 5·18 기념재단 사

무실에서 축제성 행사 취소 및 5·18 기념식 행사 보이콧 등에 따른 대책 회의를 갖고 최종 입장을 밝힌다. 행사위 안팎에서는 세월호 참사로 시·도민 애도 분위기를 감안, 축제성으로 계획됐던 전야제 등 상당수 행사를 취소하는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단장, 34주년 기념행사 때 진행할 ‘2014

광주 인권상 축하 음악회’는 취소됐고 5월 진행되던 청소년 문화축제인 ‘레드 페스타’(Red Festa)도 하반기로 무기한 연기됐다. 행사위 관계자는 “애초 계획된 실의 행사는 축소·취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위는 애초 정신계승·문화·예술·학술·국제 등 10개 부문으로 나누고 마을·동네별로 많은 지역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40여개 행사를 구상해왔다. 여기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도 5·18 34주년 기념 행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행사위 공동대표단 등은 7일 국가보훈처의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입장에

반발, 보훈처가 국가 기념행사에 지원하는 예산 1억2000만 원 반납 여부를 결정한다. 국비 반납이 결정되면 5·18 추모제 등 대표적 5·18 정신 계승 행사가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여기에 국립 5·18 묘지에서 치러지던 기념식과 별도로, 5·18 기념식을 따로 치르는 방향도 이날 결정한다는 게 행사위 공동대표단 측 입장이다. 행사위 관계자는 “정부가 5·18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상황에서 각종 추모행사를 예정대로 치르지 않고 축소·취소하는 것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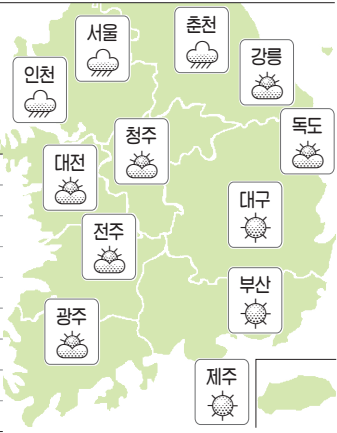
해돋이 05:36 달출몰 12:11
해질름 19:23 달질름 00:58

진도해상 '구름많음'

맑은 가운데 구름이 많았다

지역별 날씨 (℃)

광주	구름 많음	5/22	보성	구름 많음	2/20
목포	구름 많음	9/20	순천	구름 많음	8/24
여수	구름 많음	10/20	영광	구름 많음	7/23
나주	구름 많음	3/25	진도	구름 많음	7/21
완도	구름 많음	9/23	진주	구름 많음	8/26
구례	구름 많음	3/25	군산	구름 많음	8/23
강진	구름 많음	5/23	남원	구름 많음	5/25
해남	구름 많음	5/23	흑산도	구름 많음	11/19
장성	구름 많음	4/24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서	0.5~1.0	남서	0.5~1.5
남부	남서	1.0~2.0	남서	1.5~2.5
남해	남서	0.5~0.5	남서	0.5~1.0
서부	남서	0.5~1.0	남서	0.5~1.5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7:20	13:16
	19:31	00:00
여수	02:09	03:33
	14:43	20:53

주간 날씨

8(목)	9(금)	10(토)	11(일)	12(월)	13(화)	14(수)
☁	☁	☁	☁	☁	☁	☁
14/21	12/25	15/21	14/22	14/24	14/25	14/26

생활지수

☕	30
🚲	70
👕	90

서울 지하철 추돌사고...승객 249명 부상

직원, 신호오류 알고도 방치...또 人災였다

세월호 침몰 참사에 이어 수 백명이 탄 서울 지하철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전 신호기 오작동 여부 등을 인지했음에도,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잠실 방향으로 가는 열차가 앞에 멈춰 서 있던 열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중국, 바레인 국적의 외국인 2명을 포함해 승객 249명이 다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가운데 추돌한 후속 열차 기관사 4명(46) 등 7명이 골절, 뇌출혈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는 앞서가던 2258 열차가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했다가 출발하려던 중 뒤따르던 2260 열차가 추돌하면서 발생했다. 부상자들은 순천향병원, 건국대병원 등 인근 13개 병원으로 옮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열차사고수사본부는 사고 당일인 지난 2일 새벽 1시30분께 서울메트로 신호팀 직원이 신호기계실에서 신호 오류가 난 것을 확인했지만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이번 사고는 신호 오류가 발생한 지난달 29일부터 사고 당일인 2일까지 나흘간 신호기가 오작동하는 가운데 무방비로 지하철 운행이 이뤄지면서 발생했다. /연합뉴스

“교통·여행 패턴 바뀌었는데 수학여행 70년째 그대로”

광주교육청, 제도 개선 토론회 소규모 테마형 프로그램 등 창의적 코스 개발 주문 불붙

“교통발전·여행 패턴·교육시스템은 획기적으로 바뀌었는데 수학여행은 70년 넘게 그대로다. 집단적 관광형 수학여행은 재검토해야 한다.” “군이 3박4일 수학여행을 고집해야 하는가. 사흘째부터 학생·선생 모두 지쳐 귀찮아 한다. 1박2일 또는 2박3일로 줄이는 방안은 어떤가.”

지난 2일 광주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광주시교육청 ‘수학여행 제도 개선을 위한 사례 발표 및 의견수렴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기존의 집단적 수학여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대책을 쏟아냈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당초 150명가량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2배가 넘는 350여명이 참석해 수학여행 개선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토론회에 이어 오는 16일께 공청회를 열어 ‘광주형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방침이다. 토론회에서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상일여고 김진구

교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연관된 주제를 중심으로 8개 테마형 코스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며 “기존의 수학여행을 벗어나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참여하는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고 창의적 학교문화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장은 “우리 교장을 알고 안전사고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광주·전남·전북지역을 대상으로 코스를 개발했다”며 “이는 지자체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지역경제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숙 지산초 교사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학교의 전통적인 특색을 반영하도록 수학여행을 기획하고 있다”며 “수

학여행을 기후변화·에너지교육이 버무려진 영상장 자전거 기행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수학여행 소규모화에는 동의하지만 무조건적인 규모 축소만이 해결책은 아니라며 새로운 수학여행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리나 수완중 교사는 “현장 체험학습에 2~3개 학급단위의 테마학습을 진행하고 있지만 소규모 수학여행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사는 할인을 저조와 사전답사 비용 등 수학여행비용의 증가, 수학여행지·교통편 선정 등 교사 업무 부담 가중, 수학여행 장소가 많아지는 데 따른 인솔교사 부족, 교육과정 운영 및 학사일정 조정 어려움 등을 호소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서 남·여 2명 숨진채 발견

광주의 인근 야산 등산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20~30대 남·여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5일 오전 7시40분께 광주시 광산구 박동동 인근 야산 승용차 안에서 김모(31·광주시 광산구)씨와 박모(여·22·부천시 원미구)씨 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김씨는 운전석에, 박씨는 조

수석에 누워 있는 상태였으며 차 안에선 타다 남은 번개탄 재가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에 외상 흔적이 없는 점과 차 안에서 번개탄, 유서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동반자살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의 거주지가 각각 다른 점으로 미뤄 이들이 인터넷 자살 사이트를 통해 만난 것이 아닌가 보고 이들의 관계 등을 조사 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2014 지리산권 방문의 해 VISIT JIRISAN AREA 2014

남원지리산둘레길은 KBS 1박2일이 함께한 창사 62주년 및과 멋이 숨쉬는 가족 여행지입니다.

남원에서 만나는 지리산 둘레길

마을과 고개를 넘어 사람과 숲을 이어주는 지리산 800리길 지리산 둘레길은 힐링입니다

남원 여행의 모든 것 남원 1박2일 앱 다운로드

남원 1박2일